

LG생명과학, 성장호르몬 사업 강화

해외 임상시험 성공적으로 완료 ... 미국 FDA에 시판허가 신청 예정

LG생명과학은 자체 개발한 지속형 사람 성장호르몬 <LB03002>의 해외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LB03002는 세계 최초로 개발된 지속형 성장호르몬으로 1주일 1회 투여로 성인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생명과학은 6월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내분비학회(ENDO: The Endocrine Society)에서 미국과 유럽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성장호르몬 결핍 환자 152명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LB03002는 비교집단 대비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

현재 시판 중인 성장호르몬은 매일 투여해야 하므로 치료가 번거로웠으나 LG생명과학의 지속형 성장호르몬이 상품화되면 환자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LG생명과학은 곧 FDA(미국식품의약국)에 LB03002의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해외 파트너인 스위스 바이오기업 Bio Partners는 유럽 규제당국의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해외 임상시험을 완료한 지속형 성장호르몬은 세계 28억달러 규모의 성장호르몬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특히 성인환자 수가 3만5000명이 넘는 미국시장의 10%를 차지해 연간 1500억원의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6/11>